

숲과 수(藪)

任 慶 彬 / 園光大教授(農博)

나무가 많이 모여서 왕성한 생육을 보이는 곳을 숲이라고 한다. 왕성한 생육의 뜻의 한계가 어느쯤인가 물어 오면 답하기 쉽지 않으나 보기에 싱싱하고 건전하다고 보이면 된다. 숲은 수풀, 수풀은 숲으로도 쓸 수 있고 한문자로는 森林이 적합하고 영어로서 forest에 해당한다.

林은 나무 또는 대나무가 우거져 있는 곳으로 생산성이 높은 곳에 해당하고 이러한 입지조건은 경사가 완만한 山麓 또는 山腹(山腰)이라고 풀이 될 수 있다. 森은 나무가 울밀하게 많이 들어서 있는 곳(나무를 넣어서)을 뜻한다. 林과 森은 서 있는 나무의 밀도의 차이로써 구별되는 것이라 하나 아리송한 설명이다.

우리나라말 사전에 보면 수풀의 뜻을 설명하기를 (1)무성하게 짙 들어찬 나무들의 모임 (2)풀, 나무, 덩굴이 한데 엉킨 곳으로 하고 있다. 두가지 뜻이 비슷하나 차이를 찾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앞의 것은 쓸만한 임목집단이고 뒤의 것은 목재의 이용가치보다는 잡다한 나무와 초목이 무질서하게 모인 것처럼 보이는 것을 뜻한다.

전자가 林 또는 森이라면 후자는 藪(숲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林과 森 즉 forest는 비교적 넓은 면적상의 수목집단이고 藪는 면적이 비교적 좁은 것을 뜻한다. 나무가 좁은 대상으로 서있어도 藪라 할 수 있어서 이러한 때에는 藪는 면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힘들기도 하다. 물론 線狀分佈를 하는 큰나무의 생육영역을 생각해서 면상분포는 환산해서 그 면적을 말할 수도 있다.

藪에 해당하는 적절한 우리말은 없으나 덩굴이 가장 가까운 뜻을 가지고 있으나 덩불과는 다른 내용의 藪도 있기에 『수』라는 말을 그대로 이해해서 쓰는 것이 좋다고 믿는다. 굳이 영어에서 유사한 말을 찾아 본다는 thicket, grove, bush, woods 등이 있다. 덩불에 가까운 뜻으로는 thicket, bush가 있고 grove는 祭神處로서의 수목집단에 쓰여진 말이고 그 면적이 넓지 못하고 종교적인 의미가 깊은 경주의 鷄林의 원래의 모습은 grove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반드시 神의 거처를 생각해서 grove를 해석하지는 않는다.

덩불을 일본사람들은 『야부』(藪)라 말하고 매우 유사한 뜻을 지니고 있는 말들이지만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藪라는 말의 뜻이 넓게 적용된 느낌이 있다. 일본어(야부)는 나무들의 모임을 말하지만 목재의 이용가치는 거의 없는 것이고 새와 작은 짐승들의 서식처로서 큰 가치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야생동물의 서식처로서의 가치는 목재생산의 그것을 훨씬 상회하기 때문에 국토이용상 덩불은 곳곳에 많아야 한다. 아름다운 새소리를 들으면서 살고 싶다면 농약을 적게 뿌리면서 좋은 농사를 짓고 싶다

면 생활환경을 운치있게 하자면 부락 주변에 또 농경지 사이사이에 덤불을 많이 남겨두고 그것을 보호해야 한다.

국토의 구석구석이 모조리 깨끗하게 정리되면 생산성이 극대화되리라고 평가하는 인사가 많으면 우리의 생활환경은 위태롭게 된다.

그런 그렇고 수(藪)가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은, 詩經이라고 믿어진다. 즉 숙재전(叔在田) 숙재수(叔在藪)란 노래가락이 있는데 이때 숙(叔)이라함은 중(仲)과 비슷하게 사모하는 사람 또는 애인을 뜻하고 전(田)과 수(藪)는 짐승과 새들을 사냥하는 숲을 말함이다. 그래서 『그대는 수에서 사냥을 하는』하는 표현으로 씩씩하고 건장한 애인을 아름답게 묘사한 대목이다.

이처럼 수는 야생동물이 많이 서식하고 있는 생물공간으로 옛적부터 설명되고 있다. 수는 임수(林藪)로 표현되기도 했는데 林은 기술한바 있는 것 처럼 상품적 가치가 있는 나무들의 모임이란 뜻이 濃厚하다. 林과 林藪의 차이는 대체로 뚜렷해서 林藪는 藪 그것에 해당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經國大典 所田은 세조 6년(1460)에 반포된 것으로 호전 田宅에 보면 『각 고을의 제방에는 잡목을 심어서 보호하고 제방에 심은 나무나 林藪안에 있는 나무를 벌채한 자는 매 80의 형을 주고 취득한 나무는 반환시키고 관련된 관리는 官을 빼앗는다』라는 대목이 있어 林藪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이때 林藪의 정의는 없으나 慶尙道邑誌에 林藪에 대한 기록이 있고 고려사에 경상북도 달성군 공산면 지사동에 있는 公山桐藪의 기록이 있으며 동국여지승람에는 경남 함양에 있는 大館林, 경남

밀양의 運禮藪, 경북 선산의 冬至藪, 경주의 왕가수와 始林, 경기 여주의 八大藪, 제주도의 金寧藪와 大橋藪 등이 있어 이것을 고찰해 볼때 林藪 또는 藪가 어떠한 것인가를 짐작할 수 있다.

鄭三峯은 經濟文鑑중에 있어서 『虞衡은 山澤의 林을 만들고 藪牧은 조수를 양축한다』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은 周制를 취한 것으로 우형(虞衡)이라 함은 우관(虞官), 우인(虞人), 우후(虞候)와 같은 뜻으로 山林沼澤의 관리를 맡아 보는 벼슬(官吏)를 말함인데 周禮에 虞衡作山林二材라 있어서 그 역할을 짐작할 수 있다. 춘추전에 『산림의 수목은 衡鹿이 이를 관리하며 藪의 薪蒸은 우후가 지킨다.』고 있어서 이때 藪는 야생동물의 蓄盛에만 치중된 것이 아니라 동시에 연료재도 취득할 수 있는대상이 되고 있다. 薪이라 하면 장작과 같이 등치가 큰 땔감이고 蒸은 가늘고 작은 땔감나무를 말한다. 또 衡鹿은 앞에 말한 虞衡과 같은 관명이다.

丁茶山은 쓰기를 『周禮에 산에 삼등이 있다. 曰大山 中山 小山 林에 三等이 있다. 曰大麓 中麓 小麓, 또 川에 三等이 있다. 曰大川 中川 小川, 澤에 三等이 있다. 曰大澤大藪 曰中澤中藪 曰小澤小藪 澤에 물이 없는 곳을 藪라 한다』라 했다.

山, 林, 그리고 藪등은 서로 다르고 지향을 기초로 해서 구분한 것인데 藪는 常水가 없는 저지에 발달한 수목집단으로 땔감 생산도 되면서 조수를 양호하는 목적이 컸고 정다산은 조수를 六畜으로 말했다. 林은 반드시 水流가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다.

林藪의 대표적인 것으로 경남 함양에 있

는 大館林을 들수 있다. 함양읍의 교외의 외곽지대를 둘러싸고 있는 藪인데 중요구 성수종은 느티나무, 밤나무, 이팝나무, 굴참나무, 떡갈나무, 때죽나무, 대패집나무, 윤노리나무, 서어나무, 층층나무 등이고 이밖에도 비목나무, 생강나무, 백동백나무, 상수리나무, 갈참나무, 신갈나무, 팽나무, 느릅나무, 아그배나무, 회화나무, 쉬나무, 사람주나무, 목장나무, 물푸레나무등 50과 6아과 86속 118종의 수목이 들어서 있고 그중 활엽수종이 115종에 이르고 있다.

이 林藪는 최치원선생의 手植이라 하는데 많은 활엽수종의 거목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은 경이 일 뿐이며 우리선조의 위대한 업적에 감탄할 뿐이다 대관림안에 『文昌侯崔先生神道碑』가 있고 다음과 같은 記載가 있다.

『嘗芝威陽. 不罰化待. 移郡. 建學士樓. 手植林木於長堤. 先生去後. 威之人士愛之. 如召伯甘棠, 愈久愈慕. 而群賢輩出…』

이 내용을 살펴보면 최치원선생께서 함양 고을을 다스릴때 사람을 벌하지 않고 다만 德으로서 감화시켰으며 고을을 옮겨 學士樓를 숲안에 세우고 긴 제방에 나무를 심 수 심었다. 선생의 死後 이곳사람들이 이를 소중히 하였고 聖君 召伯이 유숙하신마 있는 팔배나무를 백성들이 아끼듯이 했다. 세월이 지나감에 따라 아끼고 기리는 마음은 더해 갔었고 많은 현인들을 배출한 곳으로 되었다…

신라말 진성여왕때 함양의 태수였던 최치원선생님은 이곳 대관림을 조성하였는데 생각컨데 渭川의 수해를 방지하고 방풍으로 촌락의 생활환경을 좋게하고 농경지의 건조를 막은 것을 목적인 것으로 짐작된다. 그런데 그 수많은 수종이 集植되고 또 거

대목으로 되었다는 것은 기적 비슷한 일이다. 대관림은 林藪의 대표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술한바 있지만 경국대전, 戶田戶宅에 『裨補所林藪內伐木耕田者杖八十追制沒官』중 裨補의 역할을 하는 林藪라는 대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裨補란 말은 지리풍수설의 용어로서 그중 裨補寺塔說은 고려때 유행한 것으로 지상에 欠陷이 있을 때 그곳에 사탑을 세워서 보한 것이다. 비보림은 대체로 이에 류한 것으로 지세가 평탄하고 공허한 곳에 조성되고 경제적으로는 수림의 기능을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그러한 기능이 있는 평지림도 아울러 통칭하게 되었고 그러한 林藪의 기능중 특히 풍수해방비에 대하여서는 지대한 관심이 경주된 느낌이 있다.

삼국시대 그국운의 용성을 생각해서 사탑을 많이 건설한 것은 불교의 종교철리에 의한것도 있지만 그부대신앙인 裨補信仰으로 볼 것도 있다. 고려조가 망하고 불교가 쇠퇴하게 되자 造山 林藪의 비보설이 점차 비보사탑설을 대치하게 되었다. 세종 30년 金守溫이 상서하기를 『신라의 업을 歷觀하건데 千有餘年 造山種樹하고 이로서 空缺의 地所를 보했다. 州府郡縣 모두 비보로서 산을 만들고 나무를 심어 寬濶한 곳을 보했는데 이것은 지극히 賢論이다』라 하고 도읍의 비보로서 조산을 론했다. 이때 풍수방술의 조산이란 封土의 산을 만들고 생기를 축왕하기 위해서 식목한 것을 본체로 했다. 문헌상으로 조산비보의 예는 적기는 하지만 식수는 조산의 한 방편으로 쓰여졌고 따라서 이것은 일반서민의 조림사상의 발단의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비보림은 생기 또는 양기의 유출을 막아

주민의 안전과 번영의 기틀로 한다는 신앙적인 관에서 조성되고 보호된 것이나 이때 精靈이라던가 신체가 그곳에 머물러 인간의 禍福을 관장하는 기능을 부여해서 그앞에 무릎을 꿇고 치성을 올리는 崇仰의 대상으로 삼았다.

三國史記에 實聖尼師今때 즉 서기413년 『구름이 경주(東京) 狼山에 일고 있을때 이를 바라보니 樓閣처럼 보이고 오래 가므로 왕이 말하기를 이것은 필시 仙靈이 강유하는 福地일 것이다.

그러므로 이뒤부터 사람이 이곳 나무를 끊는것을 禁한다』라는 기사는 仙靈 즉 守落神이 도성부근의 숲에 강유하는 까닭에 禁伐한 것이고 이것은 우리나라 禁伐林設置의 확실한 사례로서 또 최고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런가하면 경주지방은 禁伐林이 가장먼저 해제된 사실도 기록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즉 李朝實錄 純祖때(서기1811년) 『慶州의 封山은 民의 痼弊가 되었으므로 특히 革罷(廢止)하기로 한다』는 朝議도 있었다. 경주의 封山이란 경주와 迎日郡界一帶의 넓은 면적의 산지로서 생각건데 우리나라 封山解除의 가장 빨랐든 朝議라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일반封山이 법의 운용과 施業法을 오용하고 점차 積弊를 만들게 되는데 있고 또 인구가 증가하는 沃野中에 있었던 까닭에 그곳부락민의 耕食을 부유하게 하는데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해서 藪는 줄어 든 것이다.

근래에 와서도 소위 개발이라든가 공간정리의 車輪에 압살된 林藪는 허다하게 많다. 서울시 영등포구 당산동과 마포구 합정동, 망원동을 연결하는 한강의 渡船路가 있었고 이것을 양화도라 했다. 이곳 한강

북안 선착장에는 300m의 길이에 이르는路傍에 林藪가 있었고 왕버들 소나무는 그대표종으로서 밀림을 형성하고 있었고 그 경치가 이루 말할 수 없이 아름다웠고 특히 겨울 눈이오고 쌓인 경관은 筆舌로서는 표현할 수 없었다고 한다. 東國輿地勝覽에도 양화담설이라해서 많은 詩文을 소개하고 있다. 지금은 이 林藪의 흔적조차 찾아 볼수 없게되었다. 現代化와 自然化는 상대적인 극을 이루는 느낌을 준다.

渡船場이라하면 아별이 있었던 곳이고 그래서 折楊柳의 풍습도 있었던 모양으로 楊花津折柳의 詩歌가 있다. 함정동쪽 밀림속에는 喜兩亭(一名 望遠亭)이란 정자가 있었고 한강은 水碧浮鏡으로서 뛰어난 풍경을 전개했었던 모양이다. 이러한 林藪는 交通林으로서 중요한 기능을 발휘 했었고 양화도부근의 인간풍물도 왕성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수원시 북문(長安門)밖의 華城道路의 소나무 老木, 지금은 없어졌지만 왕버들의 거목은 역시 交通林藪로서 유명한 존재였다.

필자가 대구에서 지내던 중학시절 新川橋(三德洞, 鳳山洞과 壽城新川洞을 연결하는 木橋) 주변 제방에는 팽나무의 거목이 列植되어 있었고 대구의 자랑거리였었는데 지금은 그 흔적조차 없어졌다.

林藪는 고대부터의 우리나라 林政의 중요한 부분이였고 우리민족의 명예를 나타내는 것이었으나 남아있는것도 이제부터 알게 모르게 살아져 갈 것이다. 소멸이란 것은 역사의 진리이기 때문에 역으로 역사란 소멸을 고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장엄한 林藪가 없어진다고 해서 섭섭해 할 것은 못된다. 萬有는 그 형태를 바꾸어가고 있다.